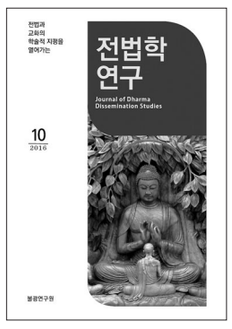
‘미디어·저출가’ 등 불교적 해법 찾다

불광연구원, 〈전법학 연구〉 10호 발간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이 불교 전법의 학문적 진흥을 위해 발간하는 〈전법학 연구〉 10호가 7월 30일 발간됐다.

이번 호에는 ‘미디어환경 변화와 불교 출판 · 잡지의 미래’를 주제로 한 논문 4편, ‘감동적 법회와 설법의 구성과 내용’을 다룬 논문 5편, ‘저출가 시대와 한국불교의 미래’를 진단한 논문 4편 등 총 14편의 논문과 전법리뷰 1편이 수록됐다.

첫 번째 특집은 ‘미디어 환경 변화와 불교출판 · 잡지의 미래 전략’으로 지난 4월 27일 월간 〈불광〉 지령 500호를 기념해 열린 연찬회의 성과를 담았다. 연찬회에서 발표된 ‘한국불교 출판시장 분석과 미래전략’(장은수), ‘디지털 시대, 출판 잡지의 동향과 트렌드’(이중호), ‘연결의 시대, 미디어 지형도 및 콘텐츠 소비 성향의 변화’(김경달)등의 논문이 게재됐다.

두 번째 주제 ‘감동적 법회를 위한 설법의 구성과 내용’에는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의 설법방법에 대한 논문인 ‘붓다의 설법론: 초기경전상의 붓다 설법의 원리와 방법’(조준호), ‘대승경전에 나타난 설법의 내용과 방법’(남수영)을 비롯해 현 시대에 적용가능한 설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효과적 메시지 전달과 청중의 몰입을 위한 설법방법론’(백도수), ‘생활밀착형 스토리텔링으로 삶의 이정표 제시해야’(박상건) 등이 실렸다.

세 번째 주제인 ‘저출가 시대와 한국불교의 미래’에는 ‘출가자 감소의 대내외적 원인과 대책’(박수호), ‘저출가 시대 승가의 위상과 역할 변화’(유승무) 등이 게재됐다.

신성민 기자

불일아카데미 ‘삼국유사와 자장’ 강좌

5기 신입생 모집… 오는 9월 1일 개강

삼국유사와 자장율사를 조명하는 인문 강좌가 열린다.

서울 법련사(주지 진경)는 오는 9월 1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경내 불일문화회관에서 3개월 과정의 제5기 불일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수강료는 15만원.

불일아카데미는 인문학 강좌로 진행된다. 주제는 ‘삼국유사, 자장과 신라 불국토로 떠나다’이며, 강사는 정진원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교수가 맡는다. 정 교수는 강좌를 통해 ‘자장율사’로 알려진 자장스님의 신라불국토 프로젝트에 선덕여왕과 미실, 진덕여왕이 가세하여 신라불교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과정을 살핀다.

정 교수는 앞서 ‘삼국유사, 여인과 걷다’와 ‘삼국유사, 원효와 춤추다’의 두 강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과정에서는 일본 속 삼국유사의 자취를 찾아보는 답사 프로그램도 기획 중에 있다.

(02)733-5322 신성민 기자

생태적 삶을 부처는 어떻게 보았나

생태콘텐츠硏 9월 강좌

조계종 연수교육 인정도

생태적 삶이 부처님 가르침에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살펴보는 강좌가 열린다.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는 오는 9월 21 · 23 · 28 · 30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생태적 삶, 그대로 부처님 가르침’을 주제로 강좌를 개최한다.

조계종 연수교육으로도 인증되는 이번 강좌는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및 종단 등록사찰 주지스님은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재가자도 참여할 수 있다. 수강료는 10만원.

연구소는 “경제 성장 위주의 개발로 인류는 기후변화 등의 위기에 직면했다. 여기에는 인간이 가진 탐욕의 총체를 만날 수 있다”면서 “이번 강좌는 현실 환경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해결점을 불교에서 찾고 실천의 계기를 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010)8020-1123 신성민 기자

“비판불교는 이분법 논리… 다양성 허용 안해”

금강대 불교문화硏, ‘불성 · 여래장’ 국제학술대회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8월 6일부터 7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불성 · 여래장 사상의 형성, 수용과 변용’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인도에서 기원 · 전래돼 동아시아 불교 사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성 · 여래장 사상이 어떻게 수용 · 변용됐는지를 살펴보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성철)는 8월 6일부터 7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불성 · 여래장 사상의 형성, 수용과 변용’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불성 · 여래장 사상 연구 분야에서 선구적 연구를 이끌고 있는 석학들이 대거 참여해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불성 · 여래장 사상은 불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비판불교’를 재비판하는 논문들도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대승대반열반경〉 여래장 사상에서 해석학적 문제’를 발표한 시모다 마사히로 도쿄대 교수는 ‘비판불교’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모다 교수는 “비판불교를 주장하는 책과 논문들은 방대하지만 주장의 기저는 동일하다”면서 “하나는 문제가 다분한 이분법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언어적 표현을 넘어선 명상 경험의 중요성을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다분한 이분법에 대해서는 대승불교 내 다양한 사상에 담긴 이론적

여래장 해석학적 접근 시도한
시모다 교수 ‘비판불교’ 재비판
“비판불교는 이론적 맥락 간과”

불성 · 여래장 변용 수용 과정
각 분야 세계 석학들 논의해

맥락의 다양성을 ‘비판불교’가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시모다 교수는 “대승불교에서 파생된 많은 개념과 사상은 이분법적 논리로 파악할 수 없는 맥락들이 있다. 일견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용어들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의미의 다양한 층위 내지 국면으로 기능한다”면서 “비판불교 주창자들은 다양성에 따른 의미의 차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판불교의 특징 중 하나인 비언어적인 명상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는 “언어와 명상 경험의 관계에 대한 고려를 불교학의 주제 영역에서 몰아낸다면 불교의 중요한 부분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 “지혜인 ‘반야’에 대해서 관련된 언어 요소를 자세히 논의할 수 있다고 해도 계율과 명상 경험인 ‘삼매’를 박탈한다면, 전체 불교 체계는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야마베 노부요시 와세다대 교수의 ‘다시 한 번 기체설(基體說)에 관하여’를 비롯해 △안성두 서울대 교수의 ‘〈보성론〉과 몇몇 유가행파 문헌들에 공통된 세 비유’ △카노 카즈오 고야산대 교수가 ‘인도에서 〈보성론〉의 수용’ 등이 각각 발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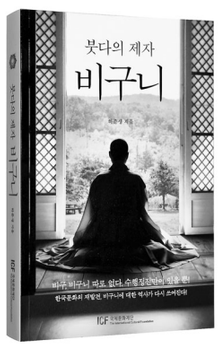
이어 둘째 날에는 △로버트 H. 샤프 버클리대 교수가 ‘불성과 초기 선(禪)’ △차상엽 금강대 교수가 ‘중국불교와 티베트 불교 속 여래장의 세 가지 의미’ △도르지 왕축 함부르크대 교수의 ‘롱소빠의 여래장 사상’이 발표됐으며, 이후 조성택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도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비구니 스님들의 모든 것을 담아내다

하춘생 교수, 연구서 〈붓다의 제자 비구니〉 발간

초기 비구니 승가 성립부터
韓비구니 역사 · 문중 등 망라
내년 영문 번역… 해외 보급



불교 역사에서 비구니 승가가 가지는 지위는 크다. 특히 한국불교에서 비구니 스님들은 수행과 포교 · 전법,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 이 같은 비구니 승가의 역사와 현황 등을 망라한 연구서가 발간됐다.

하춘생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사찰경영과정 주임교수는 비구니 스님들의 면모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연구서 〈붓다의 제자 비구니〉를 내놨다.

불교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하 교수는 오래 전부터 비구니 승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특히 최초의 ‘한국의 비구니열전’이라고 할 만한 〈깨달음의 꽃: 한국불교를 빛낸 근세비구니(전2권)〉를 펴내 ‘한국의 비구니문중 연구’의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연구서 〈붓다의 제자 비구니〉는 하 교수의 연구를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폭 넓고 쉽게 기술했다. 개론서에 가깝지만 비구니 스님들의 치열한 구도의 여정과 그 성성한 숨결을 만나기에는 충분하다.

책은 총 5개의 챕터로 이뤄진다. 첫 번째 장인 ‘비구니는 누구인가’는 출가의 개념부터 수행은 무엇인지, 최초의 비구니에 대해서 친절하고 쉽게 기술했다. 두 번째 장인 ‘비구니가 되는 길’은 득도수계, 수계의식의 역사적 변천과 수계 전통의 복원과 문제점에 대해 다루고 있다.

세 번째인 ‘역사 속 비구니’는 부처님이 아낀 비구니 제자부터 한국불교 전래와 첫 여성 출가, 한국사에 기록된 비구니 등 역사 속에 나타난 비구니 스님들을 조명한다. 네 번째 장에서는 구도 · 강학 · 지율 · 수선 · 포교 · 복지 · 문화 등 현재 한국 비구니 스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기술했다.

이 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마지막 장인 ‘비구니문중과 그 원류’이다. 저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내 현존하는 11개 비구니문중을 중심으로 문중성립의 인연과 문중본찰 49개 사암 및 기타 문중의 역사를 역동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목적에 대해 하 교수는 “구도와 교화현장에서 열정을 불사르며 전법 · 수행과 교육 · 복지 · 문화에 이르기까지 비구니들이 보여주고 있는 역동성과 생명성에 한국불교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희구(希求)를 담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로서 불교 교단을 위시한 종교계가 지목되고 있는 현실이 얼마만큼 부조리한지를 깊게 인식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국제문화재단이 펴낸 〈붓다의 제자 비구니〉는 내년 영문으로 번역돼 해외 유수대학 도서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신라사본과 원효’ 주제 한 · 일 공동학술대회

동국대 불문연 · 가나자와문고 등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과 한국사상사학회, 일본 가나가와현립 가나자와문고는 ‘신라사본과 원효’를 주제로 8월 19일 오후 1시 동국대 충무로 영상센터 내 불교학술원 강의실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1부 신라사본, 2부 원효를 주제로 나눠 열린다. 1부 신라사본에서는 △김병곤 미노부산대 교수의 ‘원홍(圓弘) 〈묘법화엄론자주(妙法華嚴論子注)〉의 새로운 이해’ △박광연 동국대 교수의 ‘쇼묘지 소장 가나자와문고 보관 의적(義寂) 〈보살계본소(菩薩戒本疏)〉의 기초 연구’ △도치 아야노의 ‘〈화엄경문답(華嚴經問答)〉의 텍스트 연구’가 발표된다.

2부 원효에서는 △오카모토 잇페이 케이오기주쿠대 교수의 ‘원효 〈대혜도경종요(大慧度經宗要)〉의 기초 연구’ △김천학 동국대 교수의 ‘쇼묘지 소장 가나자와문고 보관 원효 〈대승기신론별기(大乘起信論別記)〉’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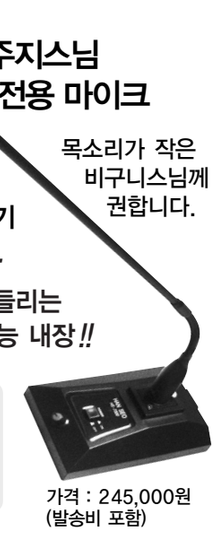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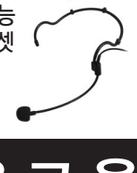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